

[QT 세미나]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1)

이상규 목사 / 2000/ 페이지수: 2

:+: 큐티란 무엇인가

“QT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뜻,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하는 경건훈련이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현대인의 삶 속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혁명적인 사건이다. 분주함, 일, 정보, 속도의 정글과도 같은 오늘날의 문명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서로 경쟁하며 서로 상대화시키고 서로 침해하기를 자연스러움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속에 지성소와 같은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공간이라는 절대시공간은 건디기 어려운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구별된 시공간은 특별한 곳, 특별한 때 - 휴가라든가, 수도원에 간다든가 하는 - 에나 적합할 듯 하다.

그런데 휴가를 내고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면의 소란스러움

이제 외부의 요란스러움, 일과 바쁜일의 요구들로부터는 자유해졌으나 전혀 뜻밖의 침입자를 직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내면속에 억압되어 있던 온갖 기억, 잡념, 염려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이나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골방은 평소에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쫓기고 불안해하던 그 ‘자아’의 푸념과 위협,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목마름의 요구로 아우성 친다. 차라리 다시 사람들 속에 가서 정신 없이 바쁘고 일에 파묻히는 것이 우리속에 있는 이 ‘자기’를 직면하는 두려움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아무리 피하고 싶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얼굴과 소리들을 떠나 분주한 일과 다른 사람들과의 소란스러움 속으로 도피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과 열심속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나’와 여전히 굶주려 있고 소외당하여 부르짖고 있는 내속의 ‘나’ 중에서 누가 가면이고 누가 실체인가?

가면적 삶으로부터의 탈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면적 삶은 당장은 사람들과 일속에서 무언가 존재가치를 느낄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바쁜 일이 다 끝난 후 그야말로 껌질과도 같은 공허와 무서우리만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심심함만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비록 그동안 살아온 세상에서 내속에 자란 참 나의 모습이 노예와 메뚜기 같은 처참한 몰골임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떠나 “조용한 시간과 장소” - 그 광야와도 같은 골방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출애굽(Exodus)이다.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글 때, 핸드폰을 끄 때 우리는 일단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광야에는 정신없이 사람들과 정보와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바로의 호령과 채찍 그리고 수고의 댓가로 받는 인정과 떡이 없다. 오히려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적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얼굴은 스스로 노예요 메뚜기라고 부르짖으며 다시 골방문을 열고 핸드폰을 켜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누구라도 좋으니 다시 애굽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자고 이 광야와 골방을 두렵다고 강권하며 통곡하고 있다.

비밀스러운 순간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된다. 여호수아와 같은 눈으로 용기를 내어 광야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성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 - 광야와 골방의 비밀이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조용함과 침묵속에는 하늘의 성소의 문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순간이 열릴 때가 있다. 바로 이런 가능성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속에 배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 - 그 염려, 조바심, 견딜 수 없는 심심함, 잡념들 - 를 직면하는 괴로움을 조금만 더 견디라. 그 자아가 아무리 다시 애굽으로 골방 밖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어도 여호수아처럼 조금만 더 견디고 있으라 (다음호에 계속)

* 출처 : Q T 신 문 (2000. 8. 27)